

익산시, 경기침체 대응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10개소 약 18억원 대출 지원
‘익산다이어움’ 인센티브 10% 지급 기한 3월까지 연장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표한 경기침체 대응책을 총력을 다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흥숙 부시장을 총괄로 소상공인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침체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4개 분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4개 업체(110백만원)에 대출 융자 지원 확정이며, 중소기업 6개 업체(1,750백만원)는 지원 확정 또는 지원 예정에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시청 구내식당을 주 2회씩 휴무하여 직원들이 관내 음식점

을 꾸준히 이용함으로써 자영업자를 위한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최대 규모의 예산집행을 추진하며, 지난 21일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액 4,344억원을 적극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7일 출시된 익산사랑상품권 ‘익산다이어움’은 한달여만에 34억원을 발행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 10% 지급 기간을 2월 말에서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며, 그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

하던 대형·창고형 식자재마트(800㎡ 이상, 관내4개소)에서의 다이로움 카드 사용 제한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공공일자리 사업을 2월 24일로 앞당겨 시작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소독 방법을 수시로 전파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다중이용시설(익산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음식점, 수퍼, 숙박업소 등에 소독용품을 배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이며, 골목상권이 살아야 익산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협력해서 이겨나가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시민 건강권 확보 ‘총력’

원광대병원,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치료 진행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역 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익산과 전주에서 분산 이동 치료가 진행된다.

특히 익산 원광대병원은 도내 첫 확진자가 완전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한 최적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26일 안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이날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치료를 전국의 읍압병실을 갖춘 곳으로 이송 치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의 70대 여성도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21일부터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원광대병원 3명, 전북대병원에서 3명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됐다.

정현을 시장은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익산시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감염병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전북대병원 5일 8명, 원광대병원 3일 3명 등 총 8일 11개의 국가 지정 읍압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위원회는 26일 익산시청 북부청사에서 추진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익산시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위원회는 유흥숙 부시장과 정명재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태열 익산시의회 의원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농업인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26일 익산시청 북부청사에서 추진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 농가 소득 향상, 시골 여행 활성화를 통한 농업

의 소득 창출과 마을 공동체 체감관광 시설 가동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등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흥숙 부시장은 “위원회의 출범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본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소득향상 및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하여 활력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열화상카메라 설치

역·공용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주요 관문에 설치

익산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1월부터 익산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이며 이번엔 익산공용버스터미널에도 추가·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발열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임시하차장 등 하차위치가 변동되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증상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터미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서 연계되

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을 빠짐없이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현재 익산역과 터미널, 시청에 각

1대씩 설치 운영중이며”며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도 항상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1월부터 익산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이며 익산공용버스터미널에도 추가·설치했다.

군산궐 수송지구대, 코로나19 피해 확산 예방 활동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 수송지구대(대장 이종영)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예방활동에 나섰다.

수송지구대는 지구대 출입문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체온측정기·소독

용 분사기를 비치해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 방문 시 팔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와 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상준 경찰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엄중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활



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취소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을 취소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하에 당초 독립유공자 유가족,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군산3.1운동10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3.1절 기념식을 취소했다.

하지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한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자생단체·시민 모두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신천지 2,300여명 전수조사

군산시가 관내 코로나19 관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군산교회 소속 2,3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군산 신천지 본부 부사장 6명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시간 간격으로 공무원이 교인 400명씩 총 2,300여명을 전담조사 할 예정으로 지난 25일 34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신천지 성도들에게 1대1 전화를 걸어 대구나 경북지역에 다녀왔는지, 발열증상이 있는지 여부, 외출자제 긴급연락처 안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천지 군산교회 소속 전수조사에서 기침·발열 증상은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보건소에 검진을 의뢰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